

外人, 이달 국내증시 1.2兆 순매도… 하반기 전망도 ‘먹구름’

韓-美 금리 차이 2%p… 사상최대
올 경제성장률 1%대 중반도 안 돼
선물시장도 매도 우위로 돌아서
상장채권 총 3830억 순회수 나서
中 경기침체 깊어질수록 불안 가중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선·현물 모두 연일 매도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도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사상 최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지면서 한국시장의 매력이크게 떨어진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 중반도 장담 못할 정도로 향후 전망도 어두워진 탓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이달 들어 전일까지 1조2758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도 순매도 규모가 1조1790억 원에 달했다.

이날 역시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679억원, 1103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이달 들어 POSCO홀딩스를 비롯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순매도 상위에 올랐다.

이번주 들어서는 현물 시장 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현재 시장 상황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도 밝게 보지 않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채권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8조9750억원을 순매수하고, 9조35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830억원을 순회수했다. 순회수로 돌아선 것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국채만 사들였고, 통안채 등은 대규모로 순회수에 나섰다.

일단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이크게 떨어졌다.

지난 7월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베이비스텝’(한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을 밟으면서 한미 금리차는 2%p까지 벌어졌다. 전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증가 기준 4.364%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흥시장에서 금리까지 낮으니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가 됐다.

금리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현지시간 20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한 차례는 더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경기 전망도 어둡다. 금리 격차가 벌어져도 한국 입장에서는 하반기 금리를 힘든 여건이라는 얘기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질 경우 우리의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준과 같은 1.5%를 유지했다. 특히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1.8%까지 올려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로 OECD보다도 낮은 각각 1.3%, 1.4%를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의약품 품질관리·진단 플랫폼社 도약”

IPO 간담회

에스엘에스바이오

시험항목·품목 300개 보유…독보적
임상시험분석 등 기법 개발·지원
영업익률 업계평균치 월등히 높아

“연구개발, 시설확충 등에 집중 투자해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허가 및 제품 등록을 추진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뛰어난 R&D 역량, 첨단 인프라, 독보적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의약품 품질관리 및 진단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가 20일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이전 상장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바이오벤처 기업인 에스엘에스바이오는 2007년 설립돼 2016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다. 주요 사업 영역은 ▲주력 캐시카우 사업인 ‘의약품 품질관리’ ▲전략적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약개발 지원’ ▲원천기술인 NTMD, NALF 플랫폼 기술 기반의 ‘인체·동물용 체외진단기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이다.

주력 사업인 ‘의약품 품질관리’는 의약품 생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기준 적합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특히 수입되는 완제 의약품의 경우 전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해 사업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시험 항목·품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독보적인 승인 항목·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한 주요 바이오 기업을 고객사로 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가 20일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전략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

수 확보하면서 높은 레퍼런스를 기록하고 있다.

구축한 고객사 네트워크는 회사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약개발 지원’ 사업의 성장성으로 이어진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서 신약개발 기업의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분석, 효능 검사, 독성 검사, 역가·순도·함량 분석, PK(약물동력학) 분석 등 다양한 분석·검사 기법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강점 중 하나는 탄탄한 재무구조이다. 당사는 지난해(2022년) 매출액 108억원, 영업이익 24억원, 당기순이익 28억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높은 실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2.5%로 업계 평균(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자력으로 수익·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어 앞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보다 적극적인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총 공모주식수는 77만주로, 100% 신주 모집이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8200원부터 9400원이다. 이에 따라 총 공모 예정 금액은 희망가 밴드 상단 기준 약 72억원 규모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CFD 잔고 반토막… 증권사 재개시기 ‘눈치’

거래 중지 전비 1.5兆 감소
교보증권 등 서비스 다시 시작
NH 등 8곳, 연내 재개 나설 듯

일부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를 다시 재개하고 있으나 CFD 잔고는 주가조작 사태 이전과 대비해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 관심이 줄어 들면서 CFD의 서비스 재개를 두고 증권사들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증거금 포함 CFD 명목 잔고는 1조2785억원으로 집계됐다. CFD의 거래가 중지되기 전인 지난 3월말(2조7697억원)에 비하면 1조5000억원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 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지난 1일 거래가 재개됐다. 앞서 지난 4월 소

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CFD가 지목되면서 국내 증권사들 대부분이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이후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신규 서비스에 나섰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FD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며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로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CFD 서비스 제공한 NH·키움·DB·하나·KB·삼성·한투·신한 등 8곳의 증권사는 재개 시기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CFD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진 데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CFD 시장

이 위축되고 있으나 재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조만간 CFD서비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해 온 CFD 서비스를 중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CFD는 국내외 주식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된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큰손들이 CFD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CFD 규모가 적었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지 얼마 안 된 업체들은 서비스 포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올해 안에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CFD를 이용했던 고객들이 다른 증권사로 옮기거나 신규 고객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전국 아파트 신고 거래량 4개월 연속 증가

신고가 거래비중, 3개월째 늘어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10건 중 1건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 거래비중은 3개월 연속 늘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량은 1505건으로, 전월(1315건)에 비해 14.4%(190건) 늘었다. 지난 5월(1152건)을 시작으로 신고가 거래량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가 거래의 비중은 4.36%에서 4.30%로 0.

06%포인트(p) 줄어 지속되던 상승세가 꺾였다. 신저가 거래량은 434건으로, 전월(445건)에 비해 2.5%(11건) 줄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8월 신저가 거래 비중은 1.24%로, 7월(1.43%) 대비 0.19%p 줄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지난달 349건으로 전월(357건)에 비해 2.2%(8건) 줄었다. 같은 기간 신고가 거래비중은 9.93%에서 10%로 0.07%p 높아졌다. 3개월 연속 증가한 신고가 거래비중은 지난해 10월(14.31%) 이후 10개월 만에 10% 이상을 기록했다. 신저가 거래 비중은 0.89%로, 2021년 9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월(0.97%)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외 지역 가운데 지난달 신고가 비중이 10%를 넘어선 지역은 제주가 18.18%로 유일했다. 서울과 제주, 강원 외 지역의 신고가 비중은 전부 5% 이하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kdh@

투자자에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 개선

금리 변동 감안해 분기 1회 이상으로

증권사의 투자자에탁금 이용료율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직·간접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월부터 운영된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에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이자율은 각 증권사들이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 지급한다. 증권사 등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 산정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진다. 이와 함께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되고 간접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안분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간 증권사별로 구분기준이 다르거나 비용 배분에 차이가 있었다.

증권사별로 달랐던 이용료율 산정주기는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된다.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을 재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이용료율 산정 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이용료율을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로 공시해 증권사마다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관희기자